

경기도, 거대 유럽연합 소비재시장의 수출길 열었다

경기도내 유망 기업 17개사로 구성된 경기도의 온라인 화상상담 통상촉진단이 동유럽 시장에서 총 67건의 수출 상담과 51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동유럽 통상촉진단은 참가기업 모두 동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유아용품, 식품, 화장품, 이미용기기 등 소비재 특화제품 생산 기업들을 선별해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모든 참가 기업이 원활한 해외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바이어

상담 주선, 통역, 외국어 카탈로그 현지 배송 및 시장동향 보고서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유럽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이 7.4%까지 떨어졌으나, 정부주도로 이뤄진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2020년 2분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됐고, 2021년에는 4.1%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유럽 시장에서 체코와 헝가리는 지정학적으로 생산과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회복 국면에 있는 거대 유럽시장의 공략과 시장 선전에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한 고양시 소재 N사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체코 현지 바이어로 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프라하에서 대리점을 독점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N사 관계자는 “까다로운 유럽 선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태안군, 이원~대산 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총력!

태안군이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신규노선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태안군은 2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이성종 건설과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신규 노선 지정에 따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반드시 성취해 나겠다고 피력했다.

군은 최근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일괄예비타당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통과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원~대산 간 연륙교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국도교통부에서는 오는 6~7월중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30) 고시

계획이다.

본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되면 5년 이내에 설계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됨으로 군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성종 과장은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국도 신규노선 지정에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준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사업이 본격 가시화 되면 물류와 산업 및 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 변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만4천 군민의 반백년 숙원사업인 국도38호 노선 승격은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이 돌아왔다’ 개막식

제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영순)은 지난 15일 제천문화회관에서 제천시청소년여울림마당 ‘청소년이 돌아왔다’ 온라인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여울림마당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강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해 청소년 문화감성 증진 및 또래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청소년 정책사업이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제천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천시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동아리 발대식과 관내 다양한 동아리들의 공연으

로 꾸며졌으며, 체험부스는 사전 신청을 받아 체험키트를 배부, 각 가정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상천 시장은 “오랜만에 청소년 공연을 보니 제 마 음도 들뜨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및 활동 활성 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올해 2021년 제천시청소년여울림마당은 올해 12월까지, 코로나 19로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난해에 비해 총 5회 걸쳐 다양한 방식의 체험활동과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채철식 기자

경남, 거제-한산도-통영 연결교량 가설 기틀 마련

통영·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북아 국제 관광 거점 발돋움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국도5호선 기점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마산시 현동에서 거제시 연초면으로 기점이 변경된 이후 경남도가 통영시, 거제시와 순접고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총 6,3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국도5호선의 기점을 거제시 연초면으로부터 통영시 도남동까지 41.4km에 걸쳐 연장하고, 해상교량 2개소 신설을 포함해 지방도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된 노선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매년 7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통영시 산양읍-한산도-추봉도-거

제시 동부면에 이르는 16km의 구간이 섬 지역인 까닭에 교통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장 난관으로 손꼽혔던 한산대교(4.0km, 4,350억 원 규모) 건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고대하는 주민과,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가덕신공항을 통해 거가대교를 거쳐 해외 관광객이 유입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대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기여할 전망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국도5호선 기점 연장은 통영·거제 40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와 남중권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연장된 노선 내 도로 신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서천군, 지역 청소년 대상 금연·절주 교육

도전! 금연 골든벨, 금연 인형극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어린이 집,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금연 교육, 도전! 금연 골든벨, 금연 인형극)과 절주 교육을 12월까지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학교는 흡연 절주 교육, 도전! 금연 골든벨 27개소, 흡연예방 인형극 19개소로 새 희망 보건협회(한국예술회관문화교육원)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원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로 개별 반 교육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비대면(유튜브 생방송)으로 전환해 교육할 계획이다.

조재경 건강증진팀장은 “청소년들에게 흡연과 알코올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 학생들이 금연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복 기자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추진

인접 지자체간 공동 협력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진천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하고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해당 공모는 전국에서 충북(진천군, 청주시, 음성군), 춘천, 포항, 대구 등 총 4곳이 선정돼 올해 예비사업 추진관련 국비 15억 원씩을 확보했으며 진천군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마스터플랜 구축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주요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교통 시설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자율주행 운행지대로 지정하고 초소형 공유 전기차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발생시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 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서비스도 함께

/이병중 기자

홍성군, 2020년 우수 DMO 성과평가 1위 수상

(주)행복한여행나눔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선도적 역할 수행

홍성군은 (주)행복한여행나눔(대표 김영준)이 ‘2020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성과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DMO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평가점수 89.78점을 기록, 2020년 선정된 17개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해 성장과 감사패를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DMO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 2021년 매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DMO사업의 첫 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한성진 기자

(주)행복한여행나눔은 민·관·산·학·연을 ‘관광광’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머물리’라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육성했으며, 군 거점 관광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관광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서계원 문화관광과과장은 “앞으로도 DMO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 홍성군을 경쟁력있는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4차산업혁명 이끌 종합박람회 연다

과기부 ‘2021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개최’ 공모 선정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1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창출 등 혁신동력 확보와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순천시와 함께 이번 사업을 기획,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 원도 확보했다.

전남에서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첫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NEXPO in 순천’이라는 행사명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순천

연향뜰 일원에서 개최된다.

5G와 AI 중심의 미래생활 전시·체험은 물론 ICT기술에 기반한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전시·체험관은 AI, 5G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테마 및 체험형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가 흥미를 이끌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순천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이번 박람회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ICT 산업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종합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배 기자

옥천군, 지용밥상 활성화 나선다

전통문화체험관내 송고가에 조리법 기술 전시 컨설팅

옥천군이 정지용 시인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개발한 음식인 지용밥상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품앤돈 음식점(옥천읍 매동로 175) 보급·판매에 이어 올해는 전통문화체험관내에 위치한 ‘송고가’음식점을 대상으로 개발음식 조리법 기술을 전수한다.

이 곳은 정지용 생가주변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시인 스토리텔링과 연계하기 좋으며, 구읍지역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오는 6월 19일까지 충북도립대 산학협력단(대표 한혜영)로부터 지용밥상 조리법 기술지도와 조리 실습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7월 이후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판매 할 예정이다.

옥천군은 옥천을 대표할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지난해 정지용 시인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찾아 향토음식인 지용밥상을 개발했다.

지용밥상은 정지용 시인의 기행수필집 산문에 수록된 음식명인 개성찜(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구성된 삼합), 찌전전 등과 지역 농산물인 쌀, 배추, 복숭아 등을 활용하여 5가지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황수섭 문화관광과과장은 “개발된 향토음식은 옥천과 정지용시인의 스토리가 담겨있고 옥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으로,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구읍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

공주시, 농산물 유통기반 확대 통해 농업가치 제고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농민이 행복하고 살만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 유통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농산물 유통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농산물종합공동사업법인 설립과 농산물 온라인 판매 및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11개 농협이 38억 5천만 원을 공동출자하고, 원예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상품화 시설구축을 위해 123억 원을 투입해 이인농협 산지유

통시설 등 5개소를 설치했으며, 매년 14억 원 가량을 지원해 오미와 딸기, 마늘 등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한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9개소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TV홈쇼핑, G마켓, 11번가 등을 적극 활용, 3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홍성현 농식품유통과과장은 “앞으로 생산자 조직화, 전문 마케팅조직육성, 다양한 시장개척 등 안정적인 농산물유통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